

서문: 전 지구화, 이주 그리고 아시아인의 정체성

채수홍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교수

오늘날 인간은 세계의 어느 곳에 살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시공간 압축'으로 정보, 물류, 인간의 교류가 점점 빨라지고, 한 지역의 정치, 안보, 경제, 문화가 다른 곳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초연결 시대에 살고 있다. 정보-통신-운송 기술, 소비시장, 위기와 재앙, 그리고 신자유주의 이념을 동력으로 삼아 자본주의는 세계 곳곳을 변형시키며 사회들의 상호의존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전 지구화(globalization) 양상을 고려하지 않고 인간의 삶과 문화를 논하는 것이 이제는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

전 지구화의 복잡성은 이러한 문화적 변형이 권력의 중심에서 변방으로 일방향으로 흐르지 않고 동질화 못지않게 이질화를 촉진한다는 데 있다. 정치·경제적 중심지의 문화가 각 지역의 문화를 대체하기보다는 지역에 녹아들고 있으며, 지역민의 실천을 매개로 끊임없이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러한 세방화(glocalization) 과정은 세계화가 오히려 지역화를 강화하고 지역민의 저항을 촉발하는 현상을 낳기도 한다. 전 지구화와 초국적 문화의 융성 속에서 지역주의, 국가주의, 민족주의가 재생하는 역설을 목도할 수 있는 것이다.

이 특집은 본디 아시아의 세방화를 이해하려는 목적에서 기획되었다. 특히 필진들은 아시아인이 세계와 지역(region)의 정치·경제적 조건의 만남과 부딪힘 속에서 형성하고 실천하고 있는 '지역 정체성(regional identity)'을 탐색하고 싶었다. '아시아 지역 정체성'이 오리엔탈리즘과 서구의 정치·경제적 필요에 따른 지역 범주 구성의 결과로 수동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역사적 사실을 인식하고 있지만, 전 지구화의 역사적 과정에서 현실 속에서 부단히 형성되고 작동해온 것도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동양과 마찬가지로 아시아가 역사적으로 구성된 범주이지만, 이 관념이 “어디까지 여행을 해서 지역민에게 어떻게 수용되고 활용되는지” 파악하고 싶었다.

하지만 필진으로 참여한 연구자들은 이러한 기획 의도를 온전히 실현하기에는 이론적, 방법론적 어려움이 산적해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하여 지역 정체성을 파악하기 위한 난망한 작업의 실타래를 풀어 보려는 시론의 성격을 갖는 글을 작성하기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아시아인의 지역 정체성을 파악하는 작업으로 직진하지 않고 시험적인 우회로를 선택하기로 한 것이다.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본 특집은 우선 아시아인의 이주 경험과 이에 대한 반응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가운데 세 논문은 베트남인, 인도 케랄라인, 중앙아시아 브라하 유대인의 이주와 노동의 경험, 관련 담론, 네트워크, 실천을 다루고 있다. 나머지 한 논문은 약간 초점을 달리하여 일본인의 전 지구화와 이주민의 유입에 대한 반응과 정책적 담론을 탐구하고 있다. 아시아인이 이주를 매개로 동일 혹은 타 지역을 어떻게 경험하고 이를 어떠한 담론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둘째, 본 특집은 아시아 이주민의 경험을 국가와 민족 정체성과 연계하여 다루고자 하였다. 필자들은 연구대상자가 이주의 과정에서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동아시아 그리고 더 나아가 아시아인으로서 정체감을 가지는지 일부 논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각 국가나 민족을 단위로 타국과 타자를 어떻게 경험하고 구성해 내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지역민이 ‘일상 정치(everyday politics)’를 만드는 과정이 지역이 아닌 국가와 민족에 근거하는 사례가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하여 본 특집은 아시아인의 교류가 국가와 민족에 관한 관념과 이념을 매개로 지역 안팎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인식을 형성하는 과정을 파악하는 단초를 제공하고자 했다.

셋째, 본 특집의 논문들은 공히 아시아인의 정체성을 이들의 경험과 실천에 천착하되 이를 역사적 과정과 정치·경제적 조건과 연계하여 설명하고자 했다. 필자들은 문화를 담론 중심으로 해석하는 인류학적 민족지 연구에 익숙한 연구자이지만, 정체성 정치를 담론적 표현의 분석에만 머물지 않고 이를 만들어내는 물질적 토대의 역사적 과정과 연계하여 설명하고자 했다. 이는 아시아인의 정체

성을 형성시키는 경험과 실천이 집단 관념의 유산일 뿐 아니라 물적 조건에 대응한 결과이기도 하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본 특집은 이상에서 설명한 문제의식을 공유한 4개 논문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채수홍은 베트남의 개혁개방정책을 계기로 산업화와 이주를 경험하고 있는 베트남 산업노동자가 다른 국가와 타 민족을 어떻게 경험하고 이들에 대하여 어떤 시각을 가지게 되는지 살펴보고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김경학은 남아시아 인의 걸프 지역 이주노동이 이들에게 어떤 정치·경제적 조건을 경험하게 하며, 그 결과 어떠한 정체성 정치가 전개되는지 기술하고 있다. 이어 최아영은 중앙아시아 부하라 유대인이 이주를 매개로 우즈베키스탄, 미국, 이스라엘을 연결하는 초국적 연결망을 형성하는 과정과 정체성 정치를 탐색한다. 마지막으로 박경민은 전지구화와 이주민 유입을 경험하고 있는 일본에서 국제화 담론과 “국제인” 양성 정책이 일본인의 다른 지역과 지역민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탐구하고 있다.

각 논문의 내용과 함의를 보다 상세하게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채수홍의 글 “탈-사회주의 베트남의 산업화와 동아시아 지역 정체성”은 산업화와 이주가 베트남인의 동아시아 지역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탐색해 본 시론이다. 이 글은 먼저 베트남 산업노동자의 삶을 틀 지워온 정치·경제적 조건의 역사적 변화를 대외 경제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어 베트남 산업노동자가 개혁개방 이전과 이후에 국내외 공장과 생활공간에서 어떤 경험을 하면서 다른 국가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를 형성해 갔는지 검토한다. 이를 위해 베트남과 한국의 한국 공장에서 일하는 베트남 노동자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으며, 베트남 산업노동자의 지역 정체성 형성의 가능성, 다면성, 허구성을 드러내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처럼 이 글은 베트남 산업노동자의 사례이면서 동시에 본 특집의 문제의식을 축약하고 있는 일종의 서문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경학의 “남아시아인의 걸프 지역 이주와 걸프국가의 이민정책”은 인도 케랄라인의 아랍에미리트 이주 경험을 다루고 있다. 최근 카타르 월드컵 시설의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끔찍한 산업재해로 세계적 주목을 받은 걸프 지역 이주노동자는 1990년대 중반부터 유입되기 시작했으며, 이들의 다수는 남아시아 출신이다. 걸프 지역 이주노동의 이와 같은 ‘남아시아화’는 양 지역에 ‘송금 회랑’

을 형성시키고, 남아시아 국가의 외환 수입과 지역민의 생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아시아 소지역 사이의 밀접한 경제 관계와 인적 교류가 아시아인의 지역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남아시아 이주노동자의 다수가 걸프 지역 이주노동자 관리 정책인 ‘카팔라제도(kafala system)’의 희생양이 되어 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혹독한 이주민 관리-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남아시아 국가의 정치 경제적 조건이 배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빈곤, 사회적 불평등, 정치적 부패, 고질적인 종교 갈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남아시아 노동계급에게 이주 노동은 열악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 글은 무거운 채무를 안고 이주를 시작하고, 고된 노동의 대가로 얻은 수입으로 본국 가족의 생계를 해결하는 걸프 지역 남아시아 노동자의 경험을 기술하고, 이것이 남아시아인의 국가, 민족, 지역 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헤아리고 있다.

최아영의 글 “중앙아시아 부하라 유대인의 초국가적 네트워크와 정체성”은 우즈베키스탄 부하라 유대인이 미국과 이스라엘로 이주하여 정착하는 과정에서 3국 사이에 ‘초국적 디아스포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현상을 기술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역사적 행로를 에스닉 미디어 분석을 활용하여 면밀하게 들여다보면서, 이들의 초국적 정체성의 특성을 밝히고 있다. 필자가 지역/국가/민족 정체성과 관련하여 찾아낸 핵심적인 특성은 각 지역이 부하라 유대인에게 인식되는 방식이 상이하다는 점이다. 모국이자 정착국인 이스라엘은 이들의 3각 네트워크의 중심이며, 거주국 미국은 디아스포라 활동을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실천의 장이다. 마지막으로 출신국 우즈베키스탄은 구소련 유대인의 다수를 이루는 아슈케나집과는 다른 ‘동방’ 유대인으로서의 부하라 유대인의 자기 인식을 강화하는 장소성을 지니고 있다. 이처럼 이 글은 유대인의 초국적·이산(離散)적 정체성이 지역 정체성과 연계하여 어떤 함의를 갖는지 성찰할 기회를 제공한다.

박경민의 글, “일본 재흥의 개국 담론과 글로벌 일본인론”은 제목이 말해 주듯 앞의 세 논문과 약간 다른 궤적에 놓여 있다. 일본인이나 재일 외국인의 이주(노동) 경험을 다루기보다 1980년대 이후 일본에서 목격되고 있는 ‘국제인’ 캠페인과 ‘글로벌 인재’ 육성 정책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러한 현상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전지구화와 ‘포스트 버블 시대’를 맞아 일본이 추구하는 새

로운 국가와 국민 정체성 만들기의 기획 의도, 실행 과정, 그리고 효과를 이해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기술과 분석을 통해 일본 정부가 전개해 온 국제화와 글로벌화 정책을 일본 재흥을 위한 정치적 수사의 하나라고 주장한다. 즉 ‘제3의 개국’ 담론의 일부로 파악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사회적 위기 속에서 이러한 담론을 활용하여 자국민을 ‘글로벌 일본인’으로 재정 의해 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탐색을 통하여 이 글은 일본의 국제화 담론이 아시아 지역과 이를 넘어선 지역에 대한 일본인의 관점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가능하고 있다.

본 특집은 이처럼 베트남, 인도, 우즈베키스탄, 일본 등 아시아의 여러 국가-지역민의 정체성을 이주, 노동, 네트워크, 정책 담론에 초점을 맞추어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글들이 기획단계의 연구목적에 맞게 아시아인의 지역 정체성의 형성과 분화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론적 퍼즐을 맞추는 데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단지 필자들의 학술적 역량만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지역민의 경험과 실천에 토대를 둔 지역 정체성 연구가 아직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시론의 성격을 띤 본 특집이 이러한 담보 상태를 헤쳐 나가는 데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소망한다.